

# 순천시, '도시 미래 정책' 투자... 경제 선순환 구축

## 전남 최대 지역화폐 발행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애니·웹툰 클러스터 기반 원도심 상권 근본적 회복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순천시가 포괄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연초부터 집중 발행하고 있다. 1500억원은 전남 시군구에서 가장 큰 규모다.

시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지역화폐 15% 할인을 시행하고 이달까지 연장 운영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유발해 최대 100만원의 추가적인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시는 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 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3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이달에는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일시 지원을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주문 태블릿 등 디지털기 도입비를, 1인 기업에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매주 금요일을 청

사 구내식당을 휴무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이 원도심을 비롯한 외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골목상권 이용 캠페인'을 추진해 지역 경제 회복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콘텐츠 기업으로 북적이게 하는 애니·웹툰 클러스터 기반 마련 시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 남문터 광장을 애니·웹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기능을 강화하고 콘텐츠 아카데미, 기업 코워킹 등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 일대에 동지를 틀 콘텐츠 기업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하는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의 일환으로 875억원 규모의 전략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의 전략펀드는 문체부 모태펀드 525억원, 시 출자금 50억원을 시드머니로 삼고 추후 선정될 운용사를 통해 민간 투자 300억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용사는 순천시가 출자한 금액의 200%인 100억원 이상을 순천시 소재 또는 이전 예정인 콘텐츠 기업과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략펀드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콘텐츠 기업 지원과 추가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장기적인 외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현재 임대 희망 건물주들과 협의를 마쳐 35개소, 69개 실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2월 중순부터는 입주 희망 기업을 공모하고, 원도심 상권에 근본적인 회복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섬진강 스카이라이프 구례군, 내달 1일 정식 개장

구례군은 본격적인 상춘객 방문 기간을 맞아 오는 3월1일 문척면 오섬관광권역 '섬진강 스카이라이프 체험시설'을 정식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섬진강 스카이라이프는 문척면 오섬관광권역 주차장과 구례읍 원방리 대숲길을 연결하는 365m 길이의 케이블 위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익사이팅 체험시설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설은 수동 자전거 12대와 전기 자전거 8대로 구성돼 있으며 신장 120cm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상 약 20m 높이에서 섬진강의 푸른 물결과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색다른 스릴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안전업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마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섬진강 스카이라이프는 관광객들이 하늘 위에서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즐길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같은 날 개장하는 지리산 정원의 지리산 스카이라이프(모노레일, 쥘라인)과 함께 구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우울자가검진 등 이동상담실 운영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장흥군청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우울자가검진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우울증 선별검사(PHQ-9), 스트레스 진단, 혈관 측정 검사 등을 진행하고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마음건강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 상담을 연계했다.

올해는 장흥군보건소, 장흥군청, 농업기술센터, 노인복지관,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5곳에서 총 10회에 걸쳐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명숙 장흥군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흥군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



여수시 소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취약계층을 찾아 싱크대를 수리하고 있다. 대원들은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2명을 발굴해 낡은 벽지 등을 교체했다.

## 여수시 소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봉사활동

여수시 소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기동대 대원들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관내 취약계층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2명을 발굴해 노후화된 싱크대와 낡은 벽지,

장판 등을 교체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50만원 범위에서 집수리 비용과 생계·의료·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금 70만원(4인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진 복지기동대장은 "이웃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삼 소라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대원들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소라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여수시, 한쪽 기준 120만원 한도

여수시가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보건복지부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 받은 최근 1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를 동부도시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수술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당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노인 33명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42건을 지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고흥군, 귀농인 교육·삶터 기반 지원

### 26기 행복학교 교육생 모집 인입비 최대 500만원 지급

'전남 귀농인 1위'를 자랑하는 고흥군이 올해도 다양한 귀농어귀촌 사업 추진으로 도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3월6일까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이미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제26기 귀농귀촌 행복학교(귀농교육)'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26기 귀농교육은 오는 3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외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선도 농가를 초빙해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이론·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지난 2019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25기에 걸쳐 66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매년 5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 접수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귀농·귀어 교육을 받기 위해 문의 및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귀농귀촌인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인구정책실 귀촌행복팀), 팩스(061-830-5094) 또는 이메일(pi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어 내달 21일까지는 고흥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읍면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은 초기 정착 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촌 조기 정착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시와 같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전기, 통신, 상수도 인입비용을 세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3개 시설의 사업비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 하며, 대상자 확정 전 시행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해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 고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이벤트 순천시, 내달 31일까지

순천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순천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특별 이벤트'를 오는 3월31일까지 진행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벤트 기간 동안 순천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한 기부자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누리집, 은행(기업,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앱 접속 또는 직접 농협을 방문해 가능하다.

당첨된 기부자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선택 외에도, 순천시에서 엄선한 우수 답례품(3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통보되며, 총 50명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